1956.4

축하의 꽃다발

김 우 철

우리들을 보세요!
재'별 같은 눈동자엔
찬란한 조국의 기'발과
푸른 하늘이 비쳐 있어요.

아침 저녁
학교로 가고 오는 길—
가로수도 자라고 새집들도 자라고
배움의 나날, 우리들도 자라요.

새 세상을 꾸며 주고, 그리고
먼 앞날을 내다 보도록
과학과 지식을 우리에게 안겨 준
로동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른 봄.
세번째 당 대회를 맞이하여
축하의 노래와 꽃다발이
영웅 도시 평양으로 모여옵니다.

전쟁을 이겨낸 수양 버들은
봄바람과 맞동동이 그네 뛰고요.
떼'목을 띄운 대동강 물'결도
손벽을 치며 노래 불러요.

우리는 압니다. 로동당원 아저씨들이
어떻게 원쑤를 이겼는가를—
그리고 선참으로 새 교실을 꾸며준
크나 큰 그 은혜를…….

용광로의 불'길을 일으킬 때에도.
아저씨들은 항상 앞장에 나섰고
협동의 들판에 수로를 끌때에도
밤을 낮으로 바꾼 아저씨들이지요

백만의 당원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들의 가슴은 몹시 뜁니다.
항상 준비하는 우리 자랑은
붉은 넥타이에 나붓깁니다.

아동 혁명단의 애국 정신을
심장마다 깊이 간직하고
리 수복, 박 원진, 영웅 형님들
모범을 뒤따라 일어선 우리.

우리는, 똑바로 나아갑니다.
로동당이 열어 놓은 넓은 앞길로!
민청 형님 누나들 뒤를 따라
새 조선을 꽃피우며 힘차게 앞으로!

보세요,
나란히 선 우리의 어깨,
어깨 우에 나래치는
소년단 기'발을!

과학의 봉우리를 향하여
자라는 앞날의 기수들이
당 대회에 드리는 이 꽃다발—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 주세요.

김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한 설야 작 만경대에서—

왜놈의 감옥에서 나온 후 다시 독립 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만경대를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김 일성 원수는 국경 지대인 중강진에 가서 소학교를 다녔으며 아버지께서 중국에 건너 갔을 때에는 림강과 장백현에서 중국 소학교를 다니였습니다.

이번호에 실리는 이야기는 원수님이 장백현 제7 소학교를 다니실 때의 일입니다. (편집부)

★ ★

사실 원수의 뛰여난 지혜는 이 때부터 벌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가장 즐겨한 것은 왜놈잡이 놀음인데 여기서도 원수의 동뜬 지혜는 나타났습니다.

즉 왜놈을 분장하는데서도 어린 창발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수는 왜놈으로 분장하는 아이에게 수수'대로 안경을 만들어 씌우고 마분지로 망원경을 만들어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놈의 걸풍을 돋구어 주는 것으로 여기에다 그 놈의 못된 안통을 보여줄 가장을 더해 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은 이 놈의 성격을 묘사할 것을 원수는 생각했습니다.

철사로 버드렁 이'발을 만들어 그 우에 담배 싸는 흰 은지를 씌워서 앞'이에 물려 놓고 입술을 노상 삐죽하게 내 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몰골이 밉기도 하려니와 무지하고 포악하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놈이 잡혀서 안경도 망원경도 모두 해제 당하고 버드렁이의 추악한 몰골로 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수의 창작적 재능—중학 시

대와 또는 빨찌산 시대에 많은 연극과 또는 가사를 지어낸 그 창조의 싹이 이 때에 벌써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때의 편쌈 또는 유희들은 물론 아직 극히 소박한 것이였지만 그 전에 비해서 조그마하나마 재로 극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에서 말한 수수'대 안경이니, 마분지 망원경이니, 철사 버드렁 이'발이니 하는 것도 그 한가지 표현이였지만 례컨대 전쟁 유희에서 입으로 기관총 소리를 낸다든지, 손으로 라팔을 만들어 가지고 뙤뙤 라팔 흉내를 낸다든지 하는 것이 또한 그의 표현이였습니다.

왜놈잡이 때, 처음 왜놈이 우세하고 벼라별 잔패와 지랄을 다 부린다 하더라도 나중은 아주 비참하게 지고 마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꾸며서 진실감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

원수의 머리에는 고향 만경대에서 그려진 비상히 아름다운 것이 늘 서리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원수의 머리에는 비'바람 치고 소낙 번개 번뜩이고 아침 놀, 저녁 놀이 오색 령롱하게 타는 그런 야단스러운 공상, 즉 풍운의 날의 공상도 서리여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원래가 공상에 취하는 성품은 아니였습니다. 공상과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자기에게 가까운 곳에 손 줄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늘 동무들을 사랑하고 동무들을 붙잡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원수는 결코 높은 산을 바라보고 부러워 쳐다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곧 달려가 보았습니다.

약한 아이를 구박하는 아이를 보면 미워하고만 섰지 못했습니다.

두 사이에 들어서서 뜯어 말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쁜 아이라 해서 영영 따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휘여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곤난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 금두라는 중국 아이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거리에서도 이름난 장사치였습니다.

마 금두는 적하면 조선 아이들을 두드려 패고《까오리 팡즈》라고 빈정댔습니다.

원수는 마 금두의 마음을 돌려 세우려고 특히 그 애와 친하게 놀았으나 다른 아이에게 대한 마 금두의 소행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마 금두는 원수보다 두 살이나 우이고 한 학급 웃반이였습니다. 마 금두는 완력을 믿고 떠죽거리며 누가 말해도 가로 가기만 했습니다.

원수는 언제든지 이 애를 좋은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 금두는 제 버릇을 고치지 않고 싸움은 도맡아 두고 했습니다.

바로 마 금두가 소학을 졸업할 그해였습니다.

그 때 원수는 열 두살이였습니다. 원수는 여섯 살 때에 손님의 밥상을 들어서 장수라는 별명까지 들었는데 열 두 살에는 벌써 름름한 소년으로 되였습니다.

기운도 세고 날래였습니다. 경주에는 늘 일등을 먹었습니다.

이때, 마 금두란 놈이 진찮은 일로 려 현장을 때려서 골통을 테 놓았습니다.

원수는 아무 말도 안하고 려 현장을 업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님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려 현장은 일어나지 못해서 원수는 혼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야, 마 금두, 사과해라》.

원수는 처음 그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새끼, 사과가 뭐가?》.

배'대 벌은 마 금두놈은 시뜻해서 대수롭지 않게 뇌까렸습니다.

《며 헌장은 골에서 피가 나서 일어나지 못한다. 네가 가서 업어 오너라》.

《비켜, 시시하다》.

《안 갈테냐?》.

《그래 안 가문 어쩔테냐. 싸와 보잔?》.

《그럼 내가 가게 해 주마》.

원수는 재빠르게 그 놈의 멱살을 거머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우야 몰려와서 뼹 둘러섰습니다. 그때, 마 금두의 주먹이 번쩍 들렸으나 그보다 먼저 원수의 머리가 번쩍하며 그 놈의 턱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 놈은 당장 그 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그 놈을 죽여라》. 하는 결매질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기어이 그 놈을 끌고 가서 며 헌장에게 사과 시켰습니다.

그 담부터 마 금두는 함부로 아이들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마 금두는 뒤에 위만국 산림경찰 대장이 되였다가 왜놈의 앞잡이로 마부대라는 토벌대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한번 원수의 빨찌산 부대와 14도구에서 맞섰는데 자기와 맞선 오늘의 빨찌산 대장이 바로 옛날의 김 성주라는 말을 듣고 이 놈은 그만 뺑소니 치고 말았습니다.)

(김 성주는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이름)

쎄르게이 미할꼬브 시

"웨.이.레닌 박물관에서" 중에서

일요일날 누나는 나를 데리고

뜰악을 나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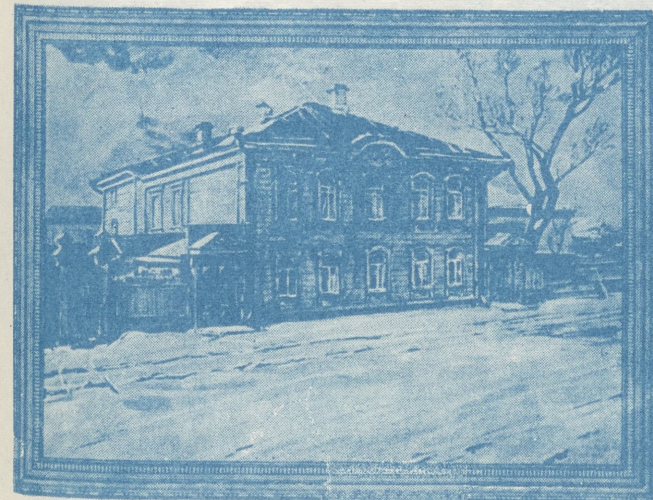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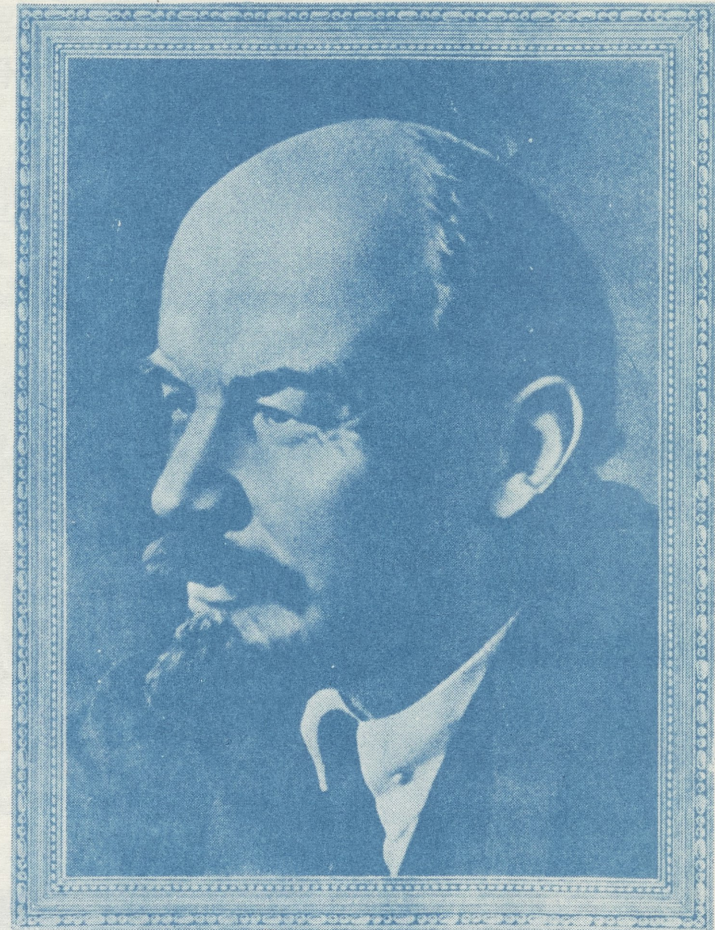
말하겠지요.

—얘야 구경가자 박물관으로!

넓은 거리 큰길 지나

들어 갔지요.

크고 붉은 궁전 같이

아름다운 집으로

울리야노브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1870—1875) 씸비르스크의 집

사람들의 물결 속에

한방 지나 또 한칸 앞으로 가면

위대한 수령의 모든 생애가

내앞에 환히 펼쳐 집니다.

레닌이 자란 집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중학생—울리야노브가

학교에서 받아온 우등 상장도.

가지런히 책들이 놓여 있는데
레닌은 어릴때 그걸 읽으며
오랜 세월 그와 함께
념원하셨다.

어릴때부터 레닌은 꿈꾸시였다.
기름진 우리의 조국 땅에서

웨·이·레닌이 처음 류형 당한 까잔도 꼬꾸슈끼노촌(1887년12월—1888년10월)

사람들이 모두다 자기 힘으로
노예살이 모르면서 살아갈것을.

날이 가고 해가 지나 울리야.
노브는
점점 크셨다, 배우며 자라
정의에 불타는 젊은 레닌은
자주 자주 다니셨다, 비밀 회
의에.

십칠년이란 세월이 흘러
레닌은 열일곱살.
그러나 그는 벌써 투사,
짜리는 레닌을 무서워했다!

—울리야노브를 잡으라!
경찰에 명령이 내려
레닌은 처음으로 붙들리였고,
머디먼 시골로 잡혀가셨다,

지간은 흘렀다.
생활이 뒤끓는 곳—
로동자를 찾아 가시고
모임에서 연설하셨다.

그가 고향으로 가지나
않는가?
그가 공장에나 가지 않
는가?
경찰들은 모든 곳에서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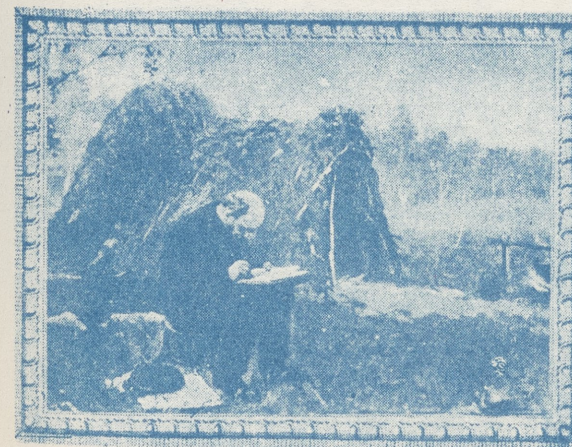
싸마라 맑스주의 소조에서의 웨·이·레닌(1893년)

다시 붙들려 또 감옥—
레닌은 류형지로 잡혀가셨다.
기나긴 씨비리 북쪽 겨울
황막한 밀림의 먼곳으로.

빠직빠직 초'불의 적은 불꽃이
한밤중 타오르는 적은 집에서
레닌은 쓰시였다.
많구 많은 글.

뻬쩨르브르그의 맑스주의 소조를 지도하는 웨·이·레닌(1893년—1894년)

그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했고
그를 얼마나 믿었던가!
그는 우리의 심장과 리지에
얼마나 광활한 길을 열으셨는
가!

사람들은 들었다, 수령의 말씀.
그리고 따랐다, 투쟁의 길을.
진리와 인민 위해
있는 힘 한평생을 모두다 바쳐.
……………

분란해안 적은 초막에서의 웨·이·레닌(1917년7월—8월)

조용한 재방으로 들어 가면서
벽에 걸린 그림을 쳐다보라구
누나더러 높으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기 저 훌륭한 그
림!》.

그림속에 있는건 적은 초막—
원쑤들의 간악한 눈을 피하여
우리의 수령이 숨어 계시던
분란 해안의 적은 초막.

풀베기 낫이며 갈구리 도끼,
그리고 오래 낡은 부젓개 하나…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름과
얼마나 많은 겨울이 지나갔는가!

이제는 이 주전자에
차를 끓일 수 없다.
그래도 주전자를 바라보며는
어쩐지 자주자주 보고 싶겠지…

(《동궁 광장을 돌파하는 적위군들》—1917년)

우리는 1917년도의
뻬뜨로그라드를 들여다 본다.
용감한 해군과 전사들이
사격하며 동궁으로 돌진해 간
다.

로동자들은 기관총을 끈다.
그들은 전투로 나아간다.
구호가 날린다.
—지배자를 타도하라! 지주를
타도하라!

부대와 련대들은
붉은기를 드높이 추켜들었다
앞장엔—볼쉐비크들인
일리이츠의 근위병들이 섰다.

이렇게 10월은 자본가들과
지주의 정권을 전복시켰다.
이렇게 10월은 로동자들과
농민의 숙망을 실현하였다.

승리는 쉬운일 아니였으나
레닌은 인민을 인도하셨고
레닌은 먼앞을 내다보면서
오래동안 쉬지않고 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의로운 사상은
영원히 인민들을
통일시켰다.

(제2차 전로 쏘베트 대회 석상에서 웨·이·레닌이 쏘베트 주권을 선포하는 장면)

기 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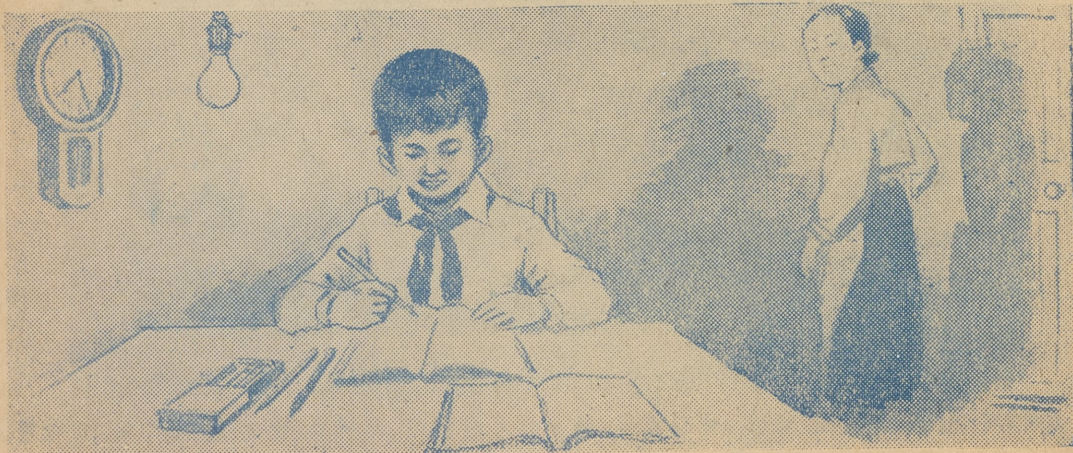
리 호 일

땡 .땡. 땡—
목종시계가 일곱번 쳤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봄방학도 지나갔으니
새학기부터 더 공부 잘 하라고
학습장 사려 나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늦게 돌아오시면
그사이 슬그머니 놀러가자고
영수는 읽던 책 덮는데

《책값이 절반이나 떨어졌단다.
학습장이랑 크레용등이—》
아빠트 이층 문을 열고 들어 오시며
어머니는 내각 결정 새소식 알립니다.

밝은 전등밑 책상 우에
흰종이 빤질한 학습장이며
붉고 푸른 색연필 얹어 놓을때
영수의 마음은 기쁨에 가득찼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나라의 은혜이며
어머니 정갈은 보살핌인가!
영수는 놀러가자던 생각이 부끄러워
새 학습장 펼치고 다시 공부합니다.

글도 못배우고 책한권 사지 못하는
남반부 아이들을 생각하며
연필을 바로잡고 꽁꽁 박아씁니다.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되기위하여

땡. 땡. 땡—
시간이 갈수록 커가는 기쁨.
로동당과 새나라의 따뜻한 손'길아래
영수는 한초를 아끼여 배우고
한시도 마음 늦추지 않고 준비합니다.

용광로의 주인들

황북 송림 제3 인민 학교 대

김 정 복

쇠'물이 한창 끓어 오르는 평로 앞에서는 색안경을 모자에 댄 용해공 아저씨들이 분초를 다투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송풍기는 세차게 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천정으로는 크레잉이 분주히 오가면서 한톤들이 광석 바케트를 성큼 들어다가 1600도가 넘는 로 속에 들붓군 하지요. 그때마다 로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우리들은 쇠'물 녹이는 시간을 전보다 두시간 앞당기고 있답니다》. 제강 직장장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로동당 제3차 대회를 맞으며 질좋은 강철을 더 많이 생산하기에 힘쓰시고 있는 로동당원인 추 상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8·15 해방 직후의 일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쾅쾅! 난포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습니다. 왜놈들이 쫓겨 가면서 파괴하고간 평로를 복구하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렀습니다. 이때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로동자 한분이 계셨지요.

정말 이 아저씨는 모든 일에서 로동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었답니다.

왜놈들의 천대를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지 못한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이 공장을 복구하여 쇠'물을 녹여 낸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였지요.

누구 하나 도본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들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네》.

어떤 로동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로를 복구하는 일에서 자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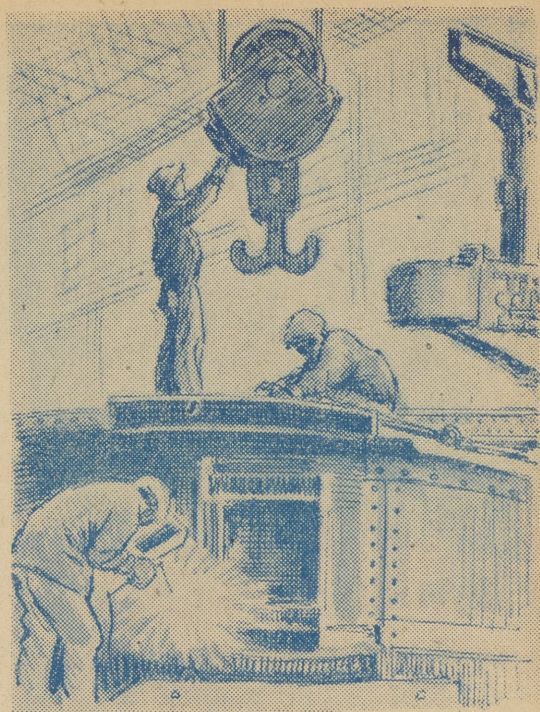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아저씨들과 함께 이 아저씨는《우리는 공장의 주인이 아닌가,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해 주겠나. 아직도 늦지 않으니 기술을 배우면서 힘껏 일해 보세》하고 자신을 갖지 못하는 로동자들에게 타 이르면서 복구하는 로의 곁을 떠날 줄 몰랐지요.

바로 이 아저씨는 이곳 제강직장에서 18년째 일해 오는 모범로동자중의 한 사람인 로동당원 추 상수 아저씨였습니다.

추 상수 아저씨의 훌륭한 모범은 많은 로동자들에게 새 힘을 주었답니다.

이리하여 완전히 복구된 평로는 또다시 힘차게 쇠'물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로에서 처음으로 쇠'물을 뽑기 시작할 때 로동자들은 환성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추 상수 아저씨는 《로동당원들의 앞엔 못해 낼 일이 없구나!》하고 쇠'장대를 더욱 힘

있게 틀어 쥐며 마음 속으로 이렇게 웨쳤습니다.

해방후 기술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아저씨는 한해 동안에 8급공이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해 나갔지요.

그러나 우리 조국에 전쟁의 불'길을 이르킨 미국놈들은 이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사랑하던 로를 폭격 당한 로동자들은 자기의 손발을 잃은 것보다 더 분했지요.

이때 추 상수 아저씨에게는 승리하는 날 다시 쇠'물을 녹이기 위하여 기계들을 뜯어 적의 폭격으로부터 지켜 내라는 과업이 맡겨졌습니다.

일본놈들이 파괴했던 것을 겨우 복구 건설해 놓은 기계들을 다시 뜯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였지요.

《어디 보자, 승리하는 날 내 손으로 다시 복구할테다》. 아저씨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다지며 뜯어 놓은 기계들을 마치 자기 몸처럼 귀중히 여기며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자 지하에 놓은 기계들은 물 속에 잠기여 녹쓸 위험이 보였지요.

물은 퍼내면 또 고이군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물을 퍼야 했지요.

이런 일은 여러날 계속되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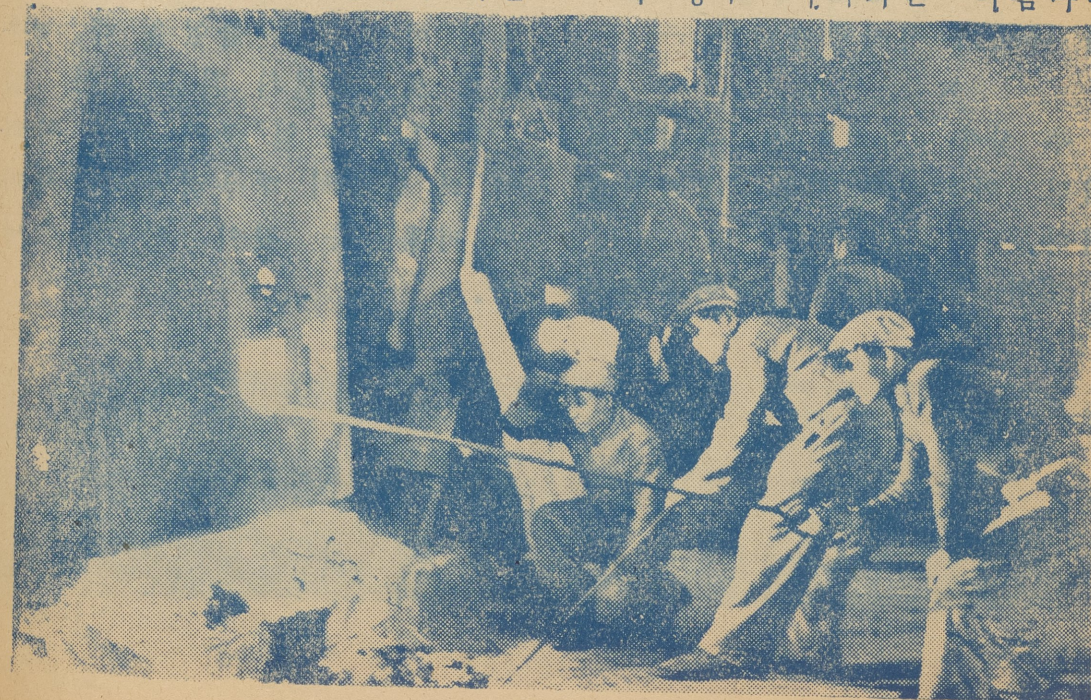
아저씨는 여러 당원들과 의논한 끝에 굴 속에다 온돌을 놓기까지 하면서 이 기계들을 지켜 내였습니다.

드디여 승리의 날은 왔습니다. 정전이 되자 이곳 로동자 아저씨들에게는 또다시 공장을 복구하는 어려운 일이 시작되였습니다.

공장 궐기 대회에서 추 상수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몸을 바쳐 고지를 지켜 싸운 우리의 전사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이날 젊은 민청원 형님들도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평로 복구를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추 상수 아저씨는 아침마다

작업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갖추어 놓군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로의 천정과 밑바닥 수리 시간을 덜 수 있을가?》. 이런 생각은 언제나 아저씨의 머리에서 떠날 줄 몰랐지요.

끝내 추 상수 아저씨와 이곳 로동자들은 왜놈 때에는 50톤짜리 로였던 것을 100톤짜리 로로 바꿔 세웠고 본래보다 곱절은 더 쇠'물을 녹여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제강 직장에는 아름다운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출강!》하는 소리와 함께 평로에서는 시'벌건 강철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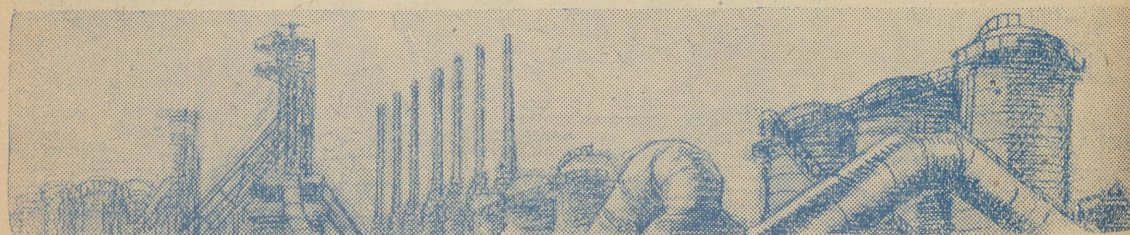
추 상수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3차 대회를 맞이하면서 올해 계획을 오는 8·15까지 끝낼 것을 목표로 삼은 우리들은 꼭 이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요》.

아저씨는 다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들은 아저씨의 눈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한몸 바쳐 일하려는 참다운 로동당원의 굳은 결의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목표는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네 브리가다에서는 이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매번 용해 시간(쇠를 녹이는 시간)을 두시간씩이나 단축하고 또 매번 10톤씩 더 많은 강철을 뽑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로동당원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로동당원의 뒤를 따라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배우리라》고 저마다 마음 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중국의 어린 벗들로부터

얼마전에 편집부는 중국 강소성 태흥현 금강 소학교 6학년 3중대(분단) 소년 선봉대원들의 이름으로 조선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래에 편지 내용을 실립니다.

× ×

사랑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위대한 국제주의 렬사로 이름난 중국 인민 지원군 양사사 렬사의 고향— 강소성 태흥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태흥현 금강 소학교 6학년 3중대 전체 선봉대원들입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 날강도놈들을 쳐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들은 오늘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다.

이 행복을 느낄 때마다 우리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원쑤 미제를 쳐부신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우리 조국과 동무들의 조국은 모두다 장엄한 건설들을 해 가고 있으며 조국의 보다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은 힘차게 일떠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오늘 우리들은 동무들에게 한가지 새 소식을 알려 주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동무들이 듣는다면 손벽을 치며 기뻐할테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가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일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꼬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해 나가게 된 그것입니다.

아저씨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찬양하며 신문에까지 발표하여 우리를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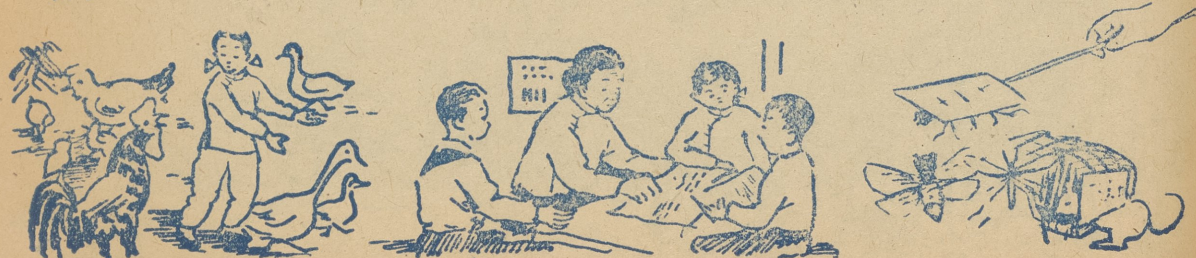
신 민주주의 청년단 중앙 서기처 서기로 계시는 호 요방 아저씨께서는,

《동무들이 지금은 꼬마 5개년 계획을 해나가고 있지만 앞날에는 큰 5개년 계획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일은 적은 성과가 싸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적은 일이 없이는 큰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무들이 지금 적은 일을 훌륭히 할 수 있는 결심이 있는 것만큼 앞으로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꼬마 5개년 계획을 더 훌륭히 해 내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우리 현내 소년 대표회의를 열고 앞으로 꼬마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훌륭히 해낼 것인가? 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우리의 꼬마 5개년 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품 수집 사업으로, 파철, 파고무, 치약통 등을 수집할 것.

2 식물 재배 사업에서 해바라기, 피마자 등을 심으며 식수 사업 및 교재원 만들기와 나무 종자 등을 채집할 것.

3 가금 가축 사양 사업으로. 닭, 오리, 비둘기, 토끼 등을 기를 것.

4 네가지 해독물, 쥐, 참새. 파리, 모기를 잡아 없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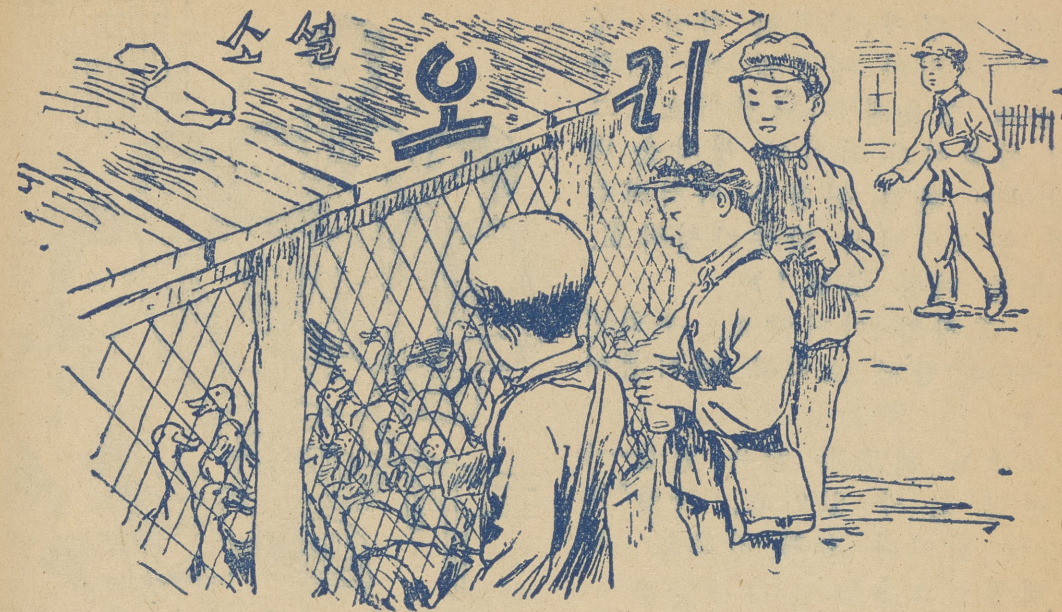
5 교편물 제작에서 학교를 도와 표본 및 교구 등을 만들 것.

6 협동 조합과 가정 일을 돕기 위해 락곡 수집, 퇴비 모으기, 우량 종자를 보급하는 일을 할 것.

7 꼬마 선생이 되여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배워주며 협동 조합 학습반에서 독보 사업을 진행할 것 등입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우리들은 동무들도 우리와 같이《꼬마 3개년 계획》을 세우고 로력 하리라고 믿으면서 아름다운 자기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적은 힘이라도 더 많이 이바지 하도록 다같이 힘써 나갑시다.

사랑하는 동무들! 꼭 회답을 바랍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강소성 태흥현
금강 소학교 6학년 3중대
전체 대원 일동 올림

리 용 순

봄 방학 때 일입니다.

반 동무들이 독서 모임을 가지게 되였는데 영철이가 혼자 늦어서 왔습니다. 규평이랑 재순이랑은 시뿌둥한 얼굴로 영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왜 늦어 왔니, 영철아!》.

그러나 영철이에게는 늦어질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늦어 온 영철이는 그 일을 인차 말할까 말까 망서리다가 그 일이 동무들을 신나게 만들어 독서 모임에 방해될가봐 모임이 끝날 때까지 꾹 참았지요.

영철이가 저녁밥을 먹고 난 때였습니다.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영철이 아버지를 찾아 왔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딱 비 올 것만 같소……》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작업 반장인 영철이 아버지와 무슨 조합 일을 의논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말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작답을 빨리 해치우고 조랑, 수수랑, 심은 담에 비가 와야겠는데! 그것 참 날씨두……》.

조합 일이 한창 바쁠 때라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영철이는 저희들 소년단원들의 힘으로 조합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철이의 머리 속엔 퍼뜩 창덕이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창덕이 어머니는 오리를 기르는 조합원입니다.

오리 기르는 일을 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맡아 하면 창덕이 어머니가 노는 땅을 풀어 밭을 만드는 작답 일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영철이는 알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만 하면 장수 할아버지가 병중에 계시더라도 문제 없을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더니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요.

《그걸 너는 못해!》.

《저 혼자가 아니야요. 우리반 동무들이 함께 오리를 먹이겠어요!》.

《그래도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린 할 수 있어요. 자연'과 시간에 닭이나 오리 기르는 법도 배웠어요!》.

영철이가 자신을 가지고 하는 말에 관리 위원장 아저씨와 영철이 아버지는

《그럼 어디 해봐라!》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였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 영철이가 이런 이야길 했더니 규평이랑 재순이랑 상빈이랑 좋와라 손벽치며 영철이가 좋은 생각했다고 저마다 칭찬하였지요. 그러나 창덕이만이 슬쩍슬쩍 눈치를 보면서 못마땅히 여겼답니다.

《왜 싫으니? 창덕아!》.

《………》

《말 하라마, 왜 그런지?》.

《난 딴 일이 있어!》. 창덕이는 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릴 먹인다구 그래?》.

창덕이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과 들이 푸름 푸름 봄 옷을 입고 진달래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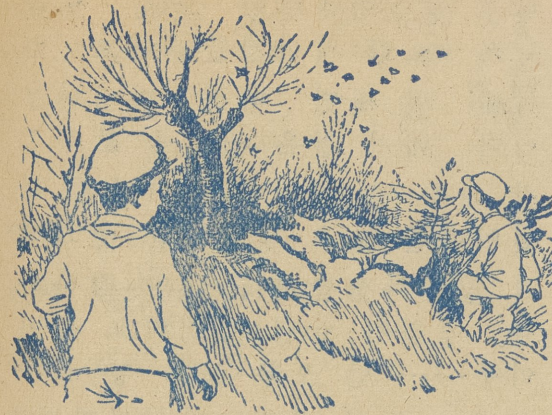
개나리랑 피게 되니 종달새가 깃을 펴게 되였지요. 그래서 종달새 잡이로 봄 방학을 보내자는게 창덕이의 마음이였지요. 그러나 창덕이는 이렇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거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영철이네는 창덕이에게 억지로 오리 먹이는 일을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튿날부터 목장에 나갔습니다. 영철이랑, 재순이랑, 규평이가 저마다 모이 그릇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더니 오리들은 반갑다는듯이 뚱뚱한 몸집을 씰룩거리면서 빡빡 소리를 다정스레 냅니다. 그 모양이 어찌나 탐스러운지 아이들은 《야— 저거 봐라. 저 것!》.

《참 귀여운데……》

하면서 성수 나 모이를 뿌립니다.

점심 때가 가까와졌습니다. 영

철이네는 오리집앞 나무 의자에 둘러 앉아서 오리가 앓는 병엔 어떠게 있고 또 오리는 1년에 새끼를 몇번 까는가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리 한마리가 울 안에서 나와 오리집 뒤 산'등성이로 달아 빼는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영철이는 깜짝 놀라 오리를 따라 오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오리 들이 울안에서 못 나오게 살펴 보았습니다.

영철이는 한참만에야 오리를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돌따서 오리를 들고 산'등성이를 내리려 하는데 얼마쯤 옆으로 떨어진 곳에서 푸드득 새들이 단꺼번에 날아 오르는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흘깃 바라다 보니 그꼴이라구야……

글쎄 창덕이가 새를 잡으려고 한 것인지 엎치였던 그가 슬슬 일어나면서 흙 묻은 저고리를 툭 툭 털고 있지 않아요. 창덕이의 넙적한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 송골 맺혀 있기까지 했어요. 그제사 영철이는 새잡이 때문에 창덕이가 오리 기르기를 반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덕아 몇마리나 잡았냐?》.

《………》

《많이 잡거든 우리에게도 노놔 주겠니?》.

《많을라구, 아침부터 따라다니는게 아직껏 한마리도 못잡았다야!》. 창덕이는 우숩깡스럽게 입을 놀리였습니다.

《잡기만 하면 노놔 주겠어!》.

창덕이는 또 어디론지 달아가고 말았습니다.

영철이는 오리집으로 돌아와 곧 창덕이 이야길 하였지요. 그랬더니 재순이랑 규평이랑, 상빈이랑 하, 하, 하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였지요.

《창덕이 처럼 해선 샐 못잡아!》.

《언제 한놈한놈 샐 따라 다니면서 잡는단 말이야? 힘만 빠지지!》.

《우리도 노고지리(종달새) 잡이 할가?》. 영철이의 말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키가 제일 크고 뺨이 붉으스레한 규평이는 눈을 부릅뜨고 화까지 버럭 냈습니다.

《그딴 소리 말아! 오리 먹이러 와서 샐 잡는단 말이야? 창덕이나 실큰 잡으라구 해!》.

그러나 영철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줄창 오리에 달라 붙어 있어

야만 되는 것이 아니니 점심 때 내가 집에 가서 헌 그물을 가져 오겠다. 그 그물을 우리가 힘을 합해 큰 그물로 만들어 종달새가 내리는 근처에 쳐서 깜쪽 같이 잡자.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창덕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가?》.

영철이는 자기의 생각을 털어 놓았습니다.

규평이랑, 재순이랑, 상빈이랑 저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오리도 기를 수 있구, 새도 잡을 수 있구,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구 안되는게 없다는 걸 그가 깨달을거야!》.

영철이의 말대로 점심 때 그들은 큰 그물을 만들어 오리집 가까운 숲에 쳤습니다. 저녁 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 올 쯤 되여서 보니 종달새 두마리나 그물 안에 들어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철이는 그물에 잡아맨 줄을 당기고 다른 아이들은 그물로 달려 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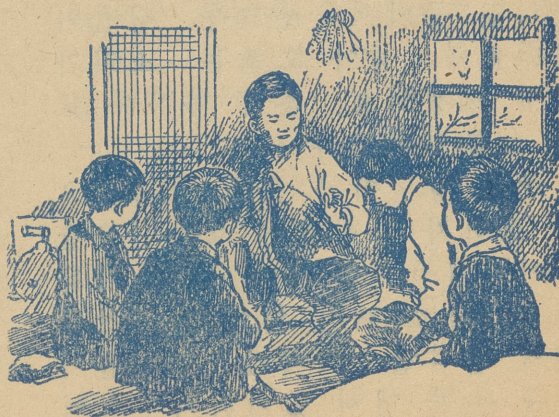
털이 부시시한 종달새를 손에 든 그들은 어찌나 기쁜지 마구 날뛰듯 하였답니다.

그날 저녁에 영철이네는 종달새 두마리를 들고 창덕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창덕이 어머니가 창덕이를 앉혀 놓고 무엇인가를 타이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넌 그 저고리 꼴이 뭐냐? 영철이네랑은 조합 일을 도와 오리 먹이기를 하고 있는데 넌 새만 따라 다니냐? 어디 네가 잡은 새 좀 보자! 참 애두…》. 어머니는 이번엔 영철이네를 보고 벙글벙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다. 영철아, 규평아, 그리고 상빈이두…… 난 오늘 노는 땅 스무평이나 풀어 밭을 만들었단다. 거기에다 래일 모레면 옥수수를 심게 됐으니 이게다 너이들이 조합을 도와준 덕분이란다…》.

영철이네는 종달새 두마리를 창덕이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네가 그것을 그물로 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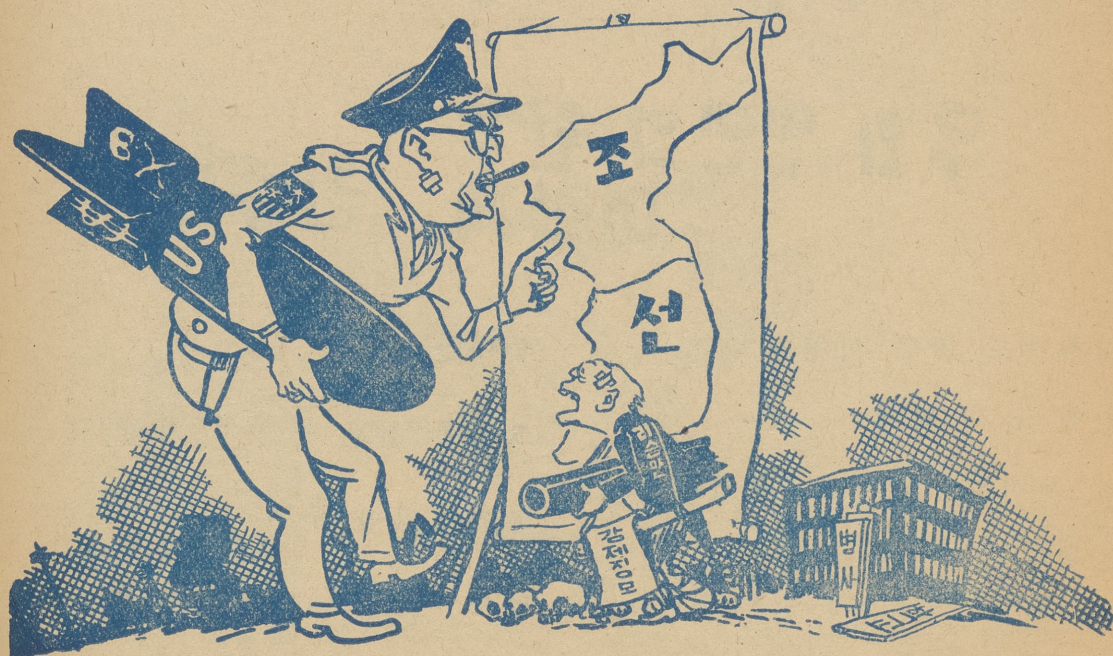
창덕이는 처음엔 울적한게 말이 없더니 신기한 눈으로 털이 부시시한 종달새를 보면서 무척 기뻐듯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두 래일부턴 오리 목장에 갈테야!》.

우리 인민의 원쑤 날강도 미제

만일
미제 날강도들이
저기 남반부 땅에
둥지를 틀지 않고
어서 물러 갔다면.

만일 그렇게만 되였다면
공화국 기'발 아래
우리 나라는 벌써
통일 되였을테다.

만일 그렇게만 되였다면
집도 학교도 잃고
길'가에서 헤매는
저 남쪽 땅의 아이들도
벌써 우리와 함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날마다 즐겁게 배우며
여름마다 야영소에서 만났을테
다.

그렇다! 미제는
우리 나라 남쪽 땅 우에
공화국 기'발을
휘날리지 못하게 하는 놈
한 나라 사람들을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놈

아이들아 잊지를 말자!
이 날강도들은
90년 전에 샤만호를 타고
조선을 탐내며다
불벼락을 맞고 도망친
그 날강도들의 손자들,

우리 집, 우리 학교 불태운
사람 가죽 쓴 승냥이들,

그렇다!
남의 집, 남의 나라에
뻰뻰스럽게 강도질 온 놈
오늘도 우리 나라 통일 가로 막고
한 나라 아이들이
함께 놀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하는
미제 날강도들은
바로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

우리 인민의 원쑤 미친개 리승만

미친개도 늙은 미친개
인젠 귀가 먹어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미친개

씰룩대는 얼굴에
붕대를 감고서도
고리를 잡은 주인이(미제)
고기덩이만 주면
남이 훔칠까 고함치며
웡! 웡!

이 미친개의 이름은
매국노 리 승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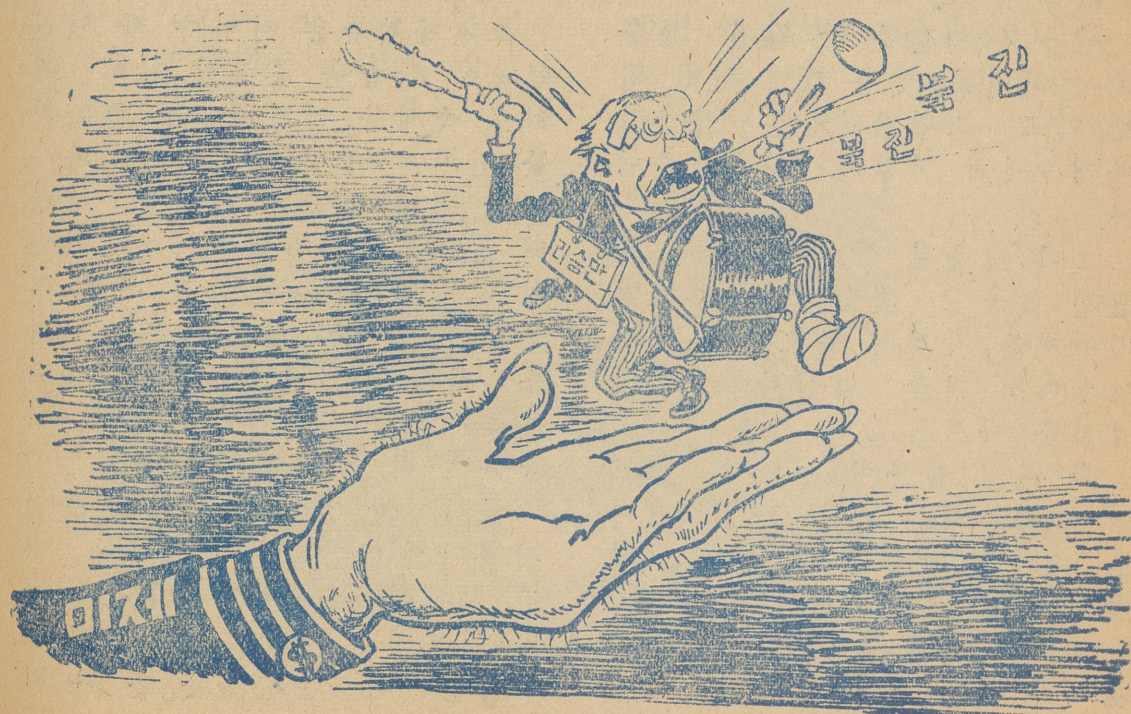
한번도 제나라 위한 일 없고
몇십년이나 두고
제 나라 제 인민 팔아
제 배 채워온 놈

제아무리 뻰뻰스러운
미제 날강도들도
이따위 미친개 매국노들이
만일 앞장 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발 부치지 못했을테다.

아이들아 잊지를 말자!

제나라 제 인민 팔아 먹으려는 놈
땅 우에 하루라도 둘 수 없는
이 따위 매국노 미친개들이
오늘도 저기 남반부 땅에서
웡! 웡! 짖어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인민의
뭉친 힘 앞에 숨 지울
매국노 리 승만 역적들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할
우리 인민의 원쑤!

(리 배 형)

—평북 구성군 원진 인민학교 대애서—

리 기 봉

《훌륭한 학업 성적으로 자랑 많은 성적표를 가지고 또 찾아 오겠습니다》.

지난 2•8절에 박 원진 영웅의 아버지를 찾아 갔던 원진 인민 학교 소년단원들은 영웅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영웅의 아버지에게서 박 원진 영웅이 열심히 공부하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박 원진 영웅처럼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결심을 다졌지요.

박 원진 영웅이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처럼 학습을 잘 했다고 떳떳이 자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웅의 아버지를 찾아 갔다가 돌아 온 후 분단들에서는 《박 원진 영웅처럼 숙제를 잘 하자》라는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박 원진 영웅이 학습을 훌륭히 하기 위하여 숙제를 어떻게 잘 했는가를 신이 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원진 영웅은 여섯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쪼들려 공부를 하지 못한 영웅의 아버지는 화전 농사로 겨우 살아 가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이름 자라도 알게 하겠다고 서당에 보냈지요.

아침이면 서당에 업어다 주고 저녁이면 업어 데려 오면서 어린 원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어린 원진이는 한철도 못되여 그 어려운 《천자문》(한문)을 다 배워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후 인민 학교를 다닐 때에도 원진 영웅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꼭꼭 지켰습니다.

인민 학교 4학년 때의 도화 숙제 이야기는 그것을 잘 말해 주지요.

학교에서 돌아와 도화 숙제로 그림을 한장 정성껏 그렸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여물을 썰고 있는 사이에 어린 동생이 그 그림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한장 남아 있던 도화지에 그린 것이였지요.

박 원진 영웅은 그날 저녁으로 봉명에 가서 도화지를 사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다음 날도와 숙제를 바쳤습니다. 이리하여 선생님과 동무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의 수첩마다에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학습장을 볼 생각만 하던 박 봉석 동무와 숙제를 안하고도 해온체 하고 선생님과 동무들을 속이던 장 응찬 동무도 이제는 숙제를 게으르지 않게 되였습니다.

이들도 오는 방학에는 다른 동무들과 같이 훌륭한 성적표를 가지고 영웅의 아버지를 찾아 갈 날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학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리 옥주네 반 동무들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요일에 영웅의 아버지를 찾아 갔다가 가지고 온 소식이지요.

영웅의 아버지께서 영웅이 여섯살 때 배우던 한문책(천자문)과 영웅이 부모를 도와 김 매던 호미(이름이 새겨 있다)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집에서 새로 나진

것이랍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대위원장 리 천규 동무가

《우리들은 훌륭한 선물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 했으면 좋을가?》라고 말하자 모두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고향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자. 조국을 지키여 목숨 바쳐 싸운 박 원진 영웅이 나서 자란 고향인데!》하고 리 태삼 동무가 말하자,

《그래 그래, 그걸 선물로 더 가지고 가자! 향토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야!》하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1분단에서는 원진리에 조직된 제1, 제2, 양지, 북리 농업 협동 조합들을 찾아 떠났고 2분단에서는 전적지인 퇴남산과 쑥발골을 향해 향토 답사를 떠났지요. 분단에서는 길상광산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했지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먼 옛날 1019년에 강 감찬 장군이 군대와 인민들을 지휘하여 우리 조국에 쳐들어 온 거란족을 무찔러 무리죽음을 시킨 자랑스러운 전적지— 퇴남산과 쑥발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이 높은 봉우리들과 깊은 골짜기들은 일본 강도들이 침략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투쟁의 불'길을 높이 든 자랑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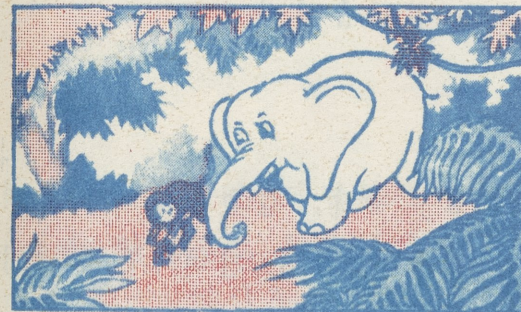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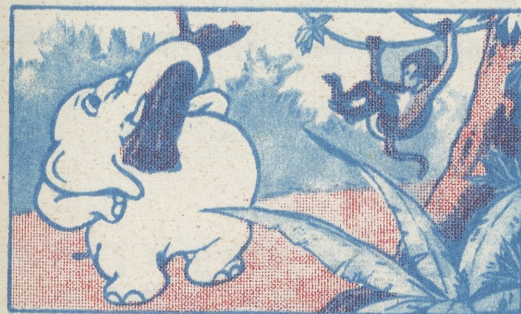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자랑 많은 원진리는 더 큰 자랑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옥수수 농사로 이름 나게 될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면양을 많이 치며 집누에와 섭누에를 많이 치게 될 빛나는 앞날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들에는 소와 면양들의 떼가 구름처럼 무리지어 다닐 것이며 산들에는 섭누에가 큰 고치들을 짓게 된답니다. 지금 협동 조합들에는 소, 돼지들이 늘어 가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100정보나 더 넓은 곳에서 섭누에를 친다는 것을 알았지요.

《앞날에야 우리들이 원진리의 주인이지. 박 원진 영웅이 빛낸 우리 고향을 이젠 우리들이 더욱 빛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단원들은 박 원진 영웅의 아버지를 찾아 갈 날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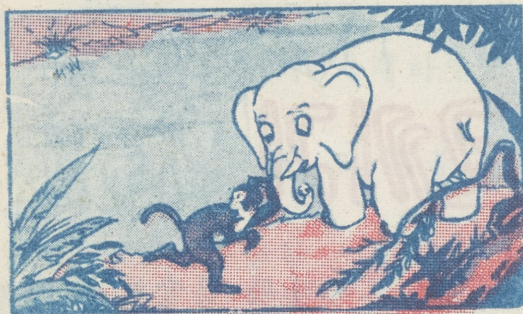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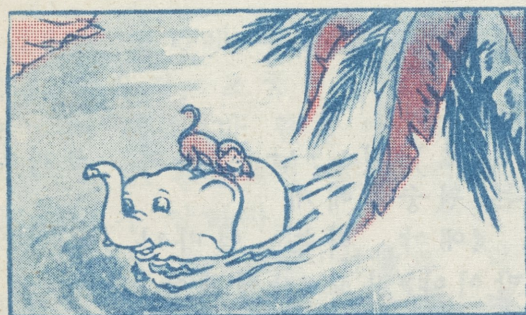
원숭이와 코끼리

(1) 코끼리와 원숭이는 이전부터 사이 좋은 친구로서 언제나 함께 놀았습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는 원숭이에게

《얘야, 나는 얼마나 억센가 말이야》라고 자랑했습니다.

원숭이는 한참 생각하다가《나는 얼마나 령리하고 날쎈가 봐요》하고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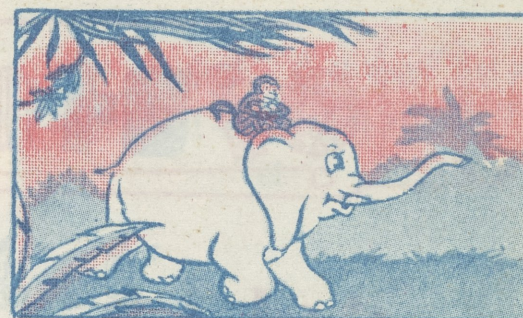
(3) 《억센 것이 령리하고 날쎈 것보다 더 좋단다》라고 코끼리가 말하자 원숭이는 《아니야, 령리하고 날쎈 것이 더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동무는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4) 그들은 한참 동안 말다툼을 했으나 끝이 안나서 다람쥐한테 찾아 가서 누가 옳은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다람쥐는 《저쪽 강을 건너 가서 큰 나무 우에 열린 과실을 따 오시요. 그러면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5) 그래서 코끼리와 원숭이는 강'가에 왔습니다. 강은 넓고 깊었습니다. 원숭이는 이 강을 보고 놀래면서 《나는 건너 갈 수 없는데 어쩌면 좋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6) 애야, 겁낼 것 없다 내가 너를 태우고 건너 가면 되지 않니》. 코끼리는 긴 코로써 원숭이를 두루룩 감아서 자기 등에 태우고 건넜습니다.

(7) 강을 건너 언덕에 와 보니 나무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일은 글렀구나. 나무가 높아서 내 코로는 과실을 딸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우리들은 빈 손으로 돌아 가야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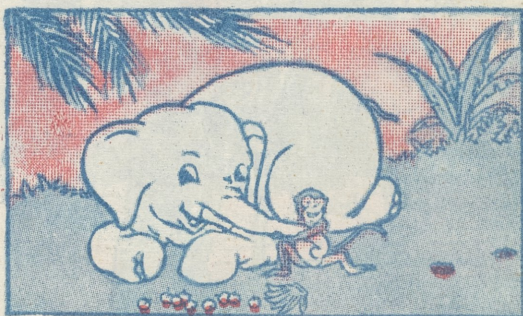
(8) 《걱정할 것 없소. 내가 나무에 잘 오른다는 것을 잊었소?》라고 말하며 원숭이는 깡충깡충 뛰여 나무에 올라 가서 과실을 따 코끼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9) 그들은 많은 과실을 따가지고 강을 건너서 의기양양하게 다람쥐한테로 돌아 왔습니다.

(10) 그들은 다람쥐에게 《과실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지요. 억센 것이 좋은지, 령리하고 날쎈 것이 좋은지를 말해 주시요》라고 말했습니다.

(11) 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자신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코끼리의 힘을 빌어서 강을 건넜고 코끼리는 원숭이 힘을 빌어 과실을 땄지요. 그러니까 억센 것이나 령리하고 날쎈 것이 다 좋은 것이지요. 아무 일이나 잘 하자면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돕는 것이 좋습니다.

(12) 이 말에 많이 깨달은 코끼리와 원숭이는 다람쥐에게 감사하고 돌아 와서 따온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후부터 그들 두 동무는 더욱 친해졌고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였습니다.

„잊어버린 약속"

애림 주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방금 나무를 심고 돌아 오는 길에서였습니다.

《난 오늘 백 대도 남아 심었을거야》.

하고 춘자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백 대는 남아 심었어―》.

춘식이도 지지 않으려고 뽐을

냈습니다.

《이제 내가 심은 나무엔 날마다 물을 길어 줄테야―》.

《나도 물 줄테야! 누가 더 나무를 사랑하나 내기할가?》.

《그래 그래 누가 더 나무를 사랑하나 내기하자꾸나》.

춘자와 춘식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며 어깨를 나란히 공원 옆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지난해 심은 살구 나무들이 벌써 분홍색 꽃망울로 울긋불긋 했습니다.

《애, 저것 봐. 살구꽃이 방금 필 것 갈구나》하며 춘자는 공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야! 정말》하며 춘식이도 달려 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살구 나무 가지를 휘여 잡으며

《난 우리 집 꽃병에 갖다 꽂을래―》.

《나도 아버지 책상에 꽂아 드릴테야》.

그러자 그들은 꽃망울진 가지들을 뚝뚝 꺾었습니다. 글쎄 공원의 꽃나무를……

아마 춘자와 춘식이는 벌써 약속을 잊었든 모양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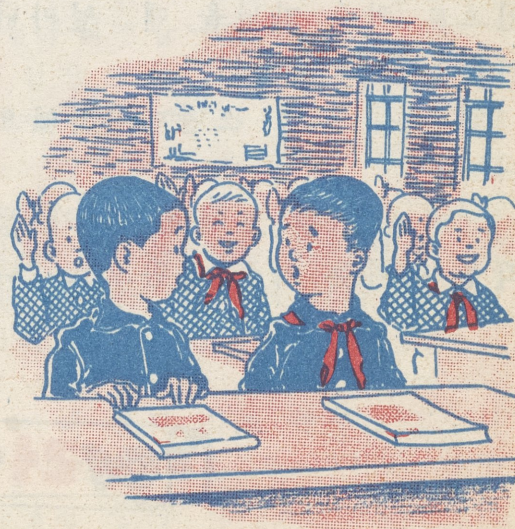
(진 균)

공부시간에

아이들은 국가 시험 훌륭히 치루려고
이 시간 산수 공부 열심히 하였지.
그러나 그러나 현길이와 현주는
뽈차기 신이 나던 이야기만 하였네.

산수 문제 훌륭히 풀어낸 아이들
물음에 막힘 없이 대답을 할 때
끌문만 그려가던 현길이와 현주
어리벙벙 아이들을 쳐다만 보았지

헛되이 보낸 시간 돌아오지 않음을
현길이와 현주는 아는지 모르는지
2대 1로 이겼다는 뽈차던 그 자랑도
공부하는 시간까지 끌고 와선 안된다네.

(신 진 균)

울고 있는 학습장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학교 장 학근 동무의 학습장이 어떻게 되였는지를 아세요? 동무들은 잘 모를 거애요.

그럼 이제 학근 동무의 학습장이 서름을 참다 못해 하는 말을 들어 보세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동무들은 모두 놀랄 것입니다.

× ×

《나는 백두산 밀림에서 싱싱 자랐고 로동자 아저씨들의 많은 로력에 의하여 훌륭한 학습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하여 나는 소년단 휘장을 앞가슴에 단 장 학근 동무를 주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학근 동무는 소년단원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내가 생각한 바와는 아주 딴판으로 나는 학근 동무를 만난지 한 주일도 못되여 구겨지고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얹친데 덮치기로 내 몸은 속깊이까지 온통 락서판이 되고 말았어요.

난 이제 남보기가 막 부끄러워요. 글쎄 이렇게 될 줄 알았드라면 나는 처음부터 학습장이 되지 않았을거애요》.

이 말은 장 학근 동무의 학습장이 소년단원들에게 울며 하는 말입니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 학습장을 이렇게만 쓴다면 모든 학습장들은 장 학근 동무를 주인으로 만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북 구장군 사오 인민 학교 대
제2 분단 **장 윤 건**

류 득 수

거북선 하면 누구나 의례 리 순신 장군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60여년 전에 우리 나라에 쳐들어와 갖은 흉악한 짓을 다한 일본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리 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용감히 싸워 큰 승리를 올린 까닭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거북선은 우리의 선조들이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만들어 낸 철갑선(무쇠로 둘러 싸인 배)입니다.

그런데 거북선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것은 리 순신 장군 때가 아니고 그 보다도 퍽 앞선 고려 말, 리조 초기입니다.

그러나 고려 말, 리조 초에 발명된 거북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해전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리 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에 대해서만 자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 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은 임진 조국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한해 전인 1591년이였고 거북선이 바다에 나타나 일본 침략자들을 보기 좋게 때려 부시기 시작한 것은 1592년 5월부터였습니다.

임진 조국 전쟁이 일어 나기 전에 높은 벼슬 자리에 앉은 많은 사람들은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 오기 시작하는 날에는 이를 륙지에서 잡아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들 하면서 해군을 없애사고 하였습니다.

이때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절라도에 있은 두 사람의 해군 사령관 중의 하나)로 있은 리

순신 장군은 이런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장군은 우리 나라에 기여 오르기 위하여 배를 타고 오는 일본 침략자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바다에서 잡아 버려야만 륙지에 있는 인민들이 무사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해군을 보다 튼튼히 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 순신 장군은 국왕에게 글을 바쳐 이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국왕과 나라의 높은 벼슬 자리에 있은 사람들은 리 순신 장군의 이 옳바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해군을 없애자던 자들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의견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이 잘 못되려 했을 때에 옳은 의견을 내여 나라 일에 실수가 없도록 한 리 순신 장군은 그후 계속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있으면서 우리 나라의 해군을 보다 튼튼히 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오는 일본 침략자들을 쳐부시자면 훌륭한 군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리 순신 장군은 고려 말, 리조 초부터 전해 온 거북선을 훌륭하게 개조하는 일을 곧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해군 병사들과 장교들은 리 순신 장군의 지도 하에 보다 훌륭한 거북선을 만들어 내기에 있는 힘을 다하였으며 장군이 계신 가까운 여러 지방 인민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애국심에 불타 장군의 부대에 찾아 와서 거북선 만드는 일을 힘껏, 재간껏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일년 후에는 거북 모양을 한 훌륭한 전함(군함)이 바다에 뜨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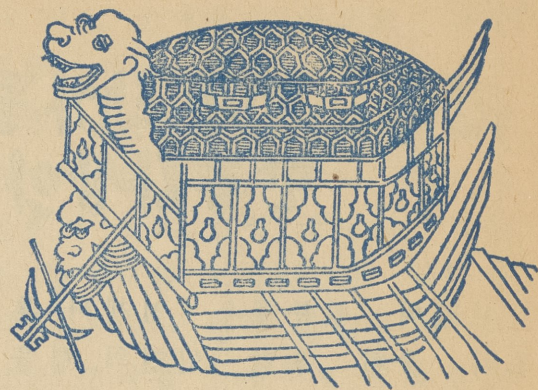
1592년 5월 7일과 8일의 첫번째 해전에서 일본 침략자들의 전함 44척을 짓부셔 큰 승리를 얻은 리 순신 함대는 5월 29일에 놈들의 함대를 찾아 다시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우리 함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간 것은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이 이때 처음으로 싸움터에 나타났습니다.

리 순신 함대의 병사들은 거북선이 싸움터에 나타나게 되자 더한층 용기를 내게 되였으며 승리의 자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23척으로 된 리 순신 함대는 사천항 앞 바다에서 일본 침략자들의 함대를 드리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대의 앞장에는 거북선이 서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총 구멍으로부터 요란한 불벼락이 쏟아져 나왔고 룡의 입으로부터는 누렇고 진한 연기가 풍겨 나와 원쑤놈들은 도저히 앞을 내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군함을 본 일이 없었던 원쑤놈들은 크게 겁을 집어 먹고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한편 우리의 함대로부터는 총탄과 화살이 비'바람처럼 튀여 나와 하늘과 바다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삽시간에 적들의 함대를 전부 쳐부시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모두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한 거북선은 그후 리 순신 함대의 기둥으로서 언제나 그의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군 하였습니다.

× ×

그러면 거북선은 어떻게 생겼을가요?

거북선의 길이는 113척 (34m 이상)이나 됩니다. 배'머리는 룡의 대가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류황과 염초(화약 만드는 원료)를 태워서 입을 벌리면 안개처럼 연기가 밖으로 나와 적을 혼내우군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머리에는 두개의 문과 총통 구멍(대포 쏘는 구멍)이 있습니다. 배의 좌우 쪽으로 노가 각각 10개, 총통 구멍이 각각 34개, 문이 각각 12개씩 있습니다.

배 안에는 26개의 방이 있습니다.

배 우에는 十자로 가는 길을 내여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였고 길이 나지 않은 곳에는 온통 송곳과 칼을 꼿꼿히 세워 놓았습니다. 때문에 적들이 기여 오르려다가는 칼과 송곳에 걸리고 가까이 대여들다가는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되여 있습니다.

참으로 거북선은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자랑의 하나입니다.

간첩, 반동 작가들이 뿌린 반동사상의 씨를 뿌리 뽑자!

인민의 원쑤들은 언제나 튼튼히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을 좀먹으려 하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살림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놈들은 간첩들을 리용하기도 하며 자기들의 방송을 통하여 거짓 선전도 하며 또 반동 작가들을 시켜 우리 인민과 청소년들에게 나쁜 반동 사상을 퍼뜨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뭉친 우리 인민은 이러한 거짓 선전과 반동 사상에 속지 않으며 또 앞으로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훨씬 전에 경각심 높은 우리 인민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서 미제의 앞잡이 간첩들인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의 더러운 정체는 드러났고 또 림 화, 김 남천, 리 태준 등 간첩, 반동 작가들의 정체도 날날이 드러났습니다.

이 간첩, 반동 작가들은 박 헌영 도당의 사촉을 받아 별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눈을 속여 반동 사상의 씨를 뿌리려고 하였습니다.

간첩이며 반동 작가인 림 화는 일제 때에는 일본놈들의 앞잡이가 되여 놈들의 개노릇을 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또 미제의 간첩질을 하면서 반동 작품을 써서 우리의 신문들과 책에 실었습니다.

리 태준도 일제 때부터 반동 작가로 일제의 개노릇을 하였으며 해방 후 1946년에 북 조선에 기여 들어와 많은 반동 소설들을 썼고 김 남천도 역시 림 화, 리 태준과 발을 맞추어 해방 전이나 해방 후나 할 것 없이 반동 작품을 썼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모두 우리 인민에게 리익을 준 것이 아니라 미제 원쑤들에게 리익을 주는 작품들입니다.

즉 이들이 쓴 작품에는 한결 같이 우리 인민의 뭉친 힘을 좀 먹으려는 반동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실례로 한두가지 들어 봅시다.

림 화가 쓴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시에는 자기 딸을 전선에 보낸 어머니가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퍼》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조선 인민 군대의 어머니의 감정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 속에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전선에 보낸 것을 둘도 없는 영예로 생각했으며 우리 인민의 원쑤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을 무찌르고 조국을 지켜 싸우는 그 모습을 항상 자랑했습니다.

림 화가 말한 그런 어머니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리 태준은 《네거리에 선 전신주》라는 소설에서 인민 군대가 남반부 한 거리를 해방하였는데 거리에는 한 소년만이 남아 있고 인민들은 모두 남으로 달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깜쪽같은 거짓말입니다. 남반부 어느 마을에서나 거리에서나 할것없이 인민들은 우리 인민 군대를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김 남천은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와 쓴 《꿀》이라는 짧은 소설에서 우리 인민 군대의 고상한 동지애를 모욕했으며 원쑤와의 싸움에서 항상 용감한 우리 인민 군대를 겁쟁이로 모욕했습니다.

보십시요. 이들의 모든 작품은 조선 인민의 악독한 원쑤인 미국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의 사촉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말살하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 내며 인민들을 속이고 미제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 인민을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독소로 가득차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은 항상 인민의 원쑤들의 이러한 거짓 선전에 속지 말며 이러한 반동 작가들이 뿌린 나쁜 반동 사상의 씨를 하루 속히 뽑아 버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옳은 사상을 넣어 주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식수계획

우리 학교 대에서는 지난 3월 3일 대 열성자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학교의 둘레에 푸른 동산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원을 꾸미기로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경험을 살리여 올해에는 나무를 허투루 아무데나 심지 말고 앞으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게 미리 식수 계획과 공원 략도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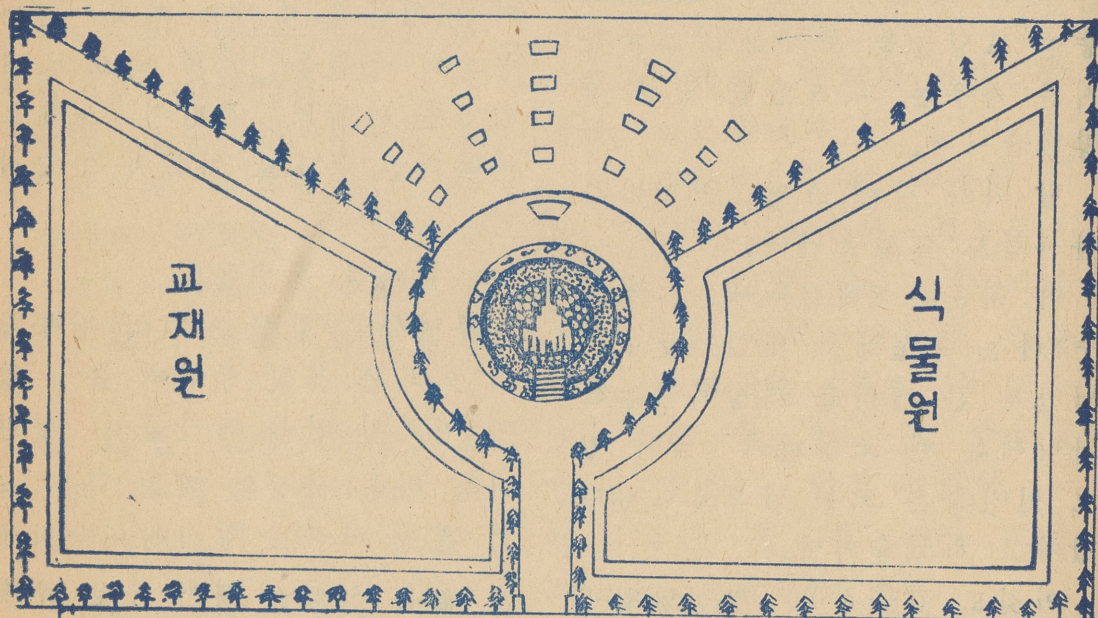
지금 각 분단들에서는 애림 주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세운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원에 잔디와 관목, 교목들을 심고 놀음터와 휴식 장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공원은 머지않아 우리들의 즐거운 휴식터로 될 것입니다.

황남 연안군 홍산 인민 학교 대
제 10 분단 **남 정 찬**

공원 계획 략도

(1) 관목
(2) 관람소로
(3) 휴식장소
(4) 층층대
(5) 잔디
(6) 교목(꽃나무)
(7) 흰돌
(8) 해방탑
(9) 대로
(10) 정문

우량 종자를 골라 내시요

물을 담은 그릇 속에 벼나 조 종자를 넣어보시요.

처음에는 잘 여물지 않은 종자도 우량 종자와 꼭 같이 물 밑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속에 소금을 넣고 다시 종자들을 넣어보시요.

이번에는 물 우에 뜨는 종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우량 종자는 밑에 가라앉고 잘 여물지 않은 종자는 뜨게 된다). 무엇 때문일가요?

× ×

벼나 조 종자들은 우량 종자건 나쁜 종자건 모두 물의 밀도보다 큰 까닭에 보통 물에서는 밑에 가라앉는다.

그러나 물에 소금을 넣으면 우량 종자만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지만 잘 여물지 않은 종자는 소금 물보다 밀도가 적기 때문에 우에 뜨게 되는 것이다.

파종을 앞두고 벼 종자를 소금 물에 담그는 것은 바루 우량 종자를 골라 내기 위한 것이다.

공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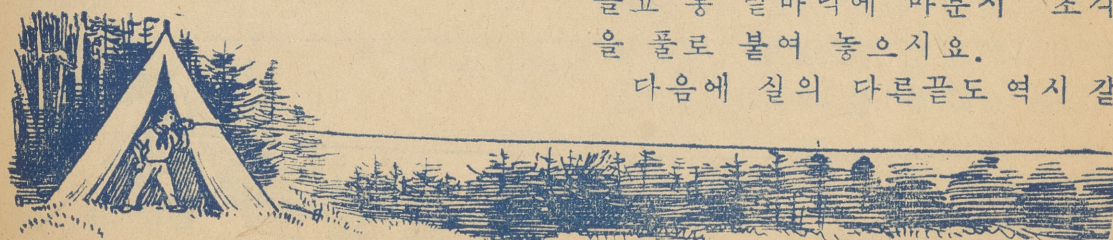
간단한 전화기

종이 혹은 마분지와 실을 가지고 간단한 전화기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마분지나 두터운 종이를 여러겹 붙여서 직경 6cm 높이 5~6cm되는 원통 두개를만드시요.

그리고 이 원통의 한쪽 면에는 원통에 맞게 종이(빨가닥거리는 종이면 더 좋다)를 원통면에 팽팽하게 풀로 붙이시요.(종이를 붙이기 전에 물에 약간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는 마르면서 팽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개의 통이 만들어지면 통 밑바닥 안쪽 복판에 직경 1cm되는 마분지 조각을 대고 그림과 같이 실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꿰시요.

그리고 실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실 끝에 마디를 만들고 통 밑바닥에 마분지 조각을 풀로 붙여 놓으시요.

다음에 실의 다른끝도 역시 갈

식물의 뿌리

식물의 생활에서 뿌리는 어떠한 역할을 노는가? 또 그의 길이는 얼마나 될가요?

× ×

식물은 뿌리를 땅 속에 든든히 박고 거기에서 물과 땅속에 섞여. 있는 비료 성분을 빨아 올린다. 식물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다.

례를 들어 오이는 40 -60cm, 수수와 모밀은 80- 100cm, 밀은 1~2m, 크로바는 3 -5m 이상되는 깊이로 들어간다.

뿌리는 옆으로도 퍼지는데 즉 옥수수는 1,5~1,8m 호박은 5m의 너비까지 퍼진다.

그리고 어린 뿌리에서는 가는 털과 같은 많은 근모가 자라며 이 근모로써 땅 속에 있는 물과 비료 성분을 빨아올리는 것이다

한대의 밀뿌리의 전체 길이는 평균 500m나 되며 근모 전체의 길이는 2,000m나 된다고 한다.

여러가지의 식물들로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구해 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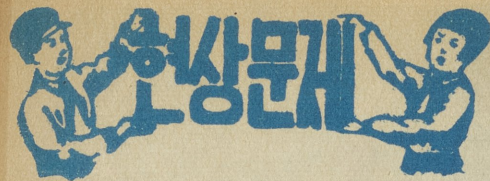
은 방법으로 다른통에 붙이시요.

이제는 두 사람이 통을(이때 두개의 통은 각각 말을 하는 송화기로도 되며 말을 듣는 수화기로도 된다) 하나씩 들고 실이 팽팽히 늘어질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서 한사람은 귀에 한사람은 입에 통을 대고 말을 하거니 듣거니 해보시요. (실이 다른 물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40~60m의 거리에서도 훌륭하게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 있는 것은 이 간단한 전화기에도 상대편 동무를 부르는 신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량쪽통으로부터 약 20 - 30cm되는 거리까지의 실에 송진을 잘 바르면 됩니다.

이부분이 마른다음 손으로 훑으면 상대편 통에서 높은 소리가 울리게 됨으로 훌륭한 신호를 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전화기는 방과 방 사이에 또는 동무들이 야영지에서 천막과 천막 사이에 달고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누가 먼저 갔을가요?

봄 방학을 리용하여 두 소년은 같이 려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 목적지까지 걸어 갔고 한 소년은 목적지까지의 절반 거리는 걸음보다 20배 더 빠른 기차를 탔고 나머지는 걸음보다 2배 느린 우차를 타고 갔습니다.

누가 먼저 갔을가요?

2. 산수 풀이

학교에서 마을 농업 협동 조합까지는 1230m입니다. 그 중간에는 목장이 있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목장까지의 거리는 목장에서 마을 농업 협동 조합까지의 거리보다 738m 짧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목장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문제를 1230m—738m=492m 라고 푼 동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였습니까?

-오 락 실-

그림자 만들기

《소년단》 1호 오락실에 소개된 《그림자 만들기》를 보고 개성 지구 개풍군 해선 인민 학교 리광용 동무는 다음과 같은 「여우」와 「개」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앞표지……3차 전당 대회를 강철 증산으로 맞는 제강소를 찾은 소년단원들……김 창규 촬영
뒤표지……만경대 전경……김 창규 촬영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4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4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4호 총(79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071 값 25 원 52,000부 발행